

Kstat Report

2020년 4월 2일

03호

코로나19 국민의식 및 삶의 변화 양상 분석

☞ 코로나19 사태 정부 대응 평가

- ☑ 국민 71%, 정부대처 '잘 한다' 평가
- ☑ 코로나19 세부정책 공감도 높고, 대외 이미지도 긍정평가
- ☑ 코로나19 감염 시 정부 조치에 대한 믿음, 매우 강해

☞ 국민수칙 준수 여부 평가

- ☑ 코로나19 예방 국민수칙, 대체로 잘 지키고 있어
- ☑ '사재기' 필요성 낮게 생각하지만 코로나19 심각해질 경우 우려감 존재

☞ 경제적 삶 변화상

- ☑ 코로나19 이후 가계소득 감소한 국민, 59%
- ☑ 가계지출 역시 국민 46%가 감소했다고 응답
- ☑ 여윌돈 있다면 지금이 '주식투자 기회' 33% vs '주식투자 위험' 67%

☞ 일상적 삶 변화상

- ☑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, 급격히 변화돼
- ☑ 코로나19 사태로 '친지나 지인과의 만남' 힘들고, '정서적 소통' 부족 느껴

☞ 코로나19 종식 전망

- ☑ 코로나19 '올해 여름까지' 종식 전망, 경제적 파장은 더 길 것으로 생각
- ☑ 코로나19 수습 국면 정부 주력과제, '국민생활 정상화'와 '경제적 약자 지원'

• • • • 일러두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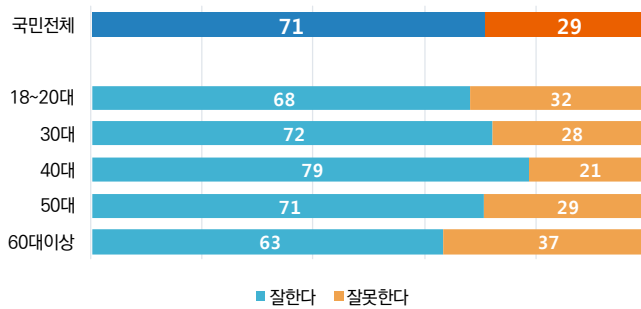
- ❖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세부항목의 합이 100%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- ❖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 - ❖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.
 - ❖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.
-

▣ 코로나19 사태 정부 대응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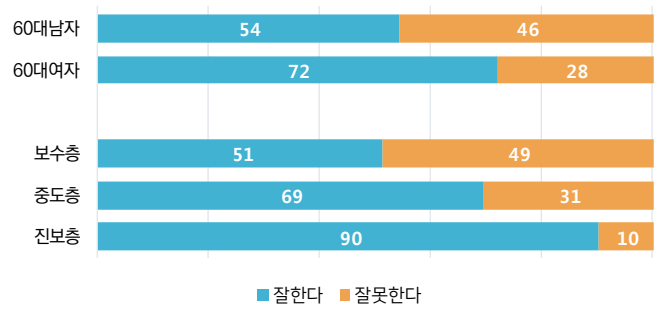
※ 국민 71%, 정부 대처 '잘 한다' 평가

- ▶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일상이 사실상 정지된 양상이지만, 국민 대다수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처를 '잘 한다'고 평가하고 있음
- 코로나19 관련 전반적인 정부대처 평가에 대해서는 '잘 한다'는 긍정평가가 71%에 달하고, 부정평가는 29%에 그침
- ▶ 모든 계층에서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며,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정서가 강했던 △60대 이상 △PK △주부, 은퇴·무직자 계층에서도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임
- ▶ 상대적으로 긍정평가가 낮은 계층은 △보수층(51%)과 △TK지역(50%)이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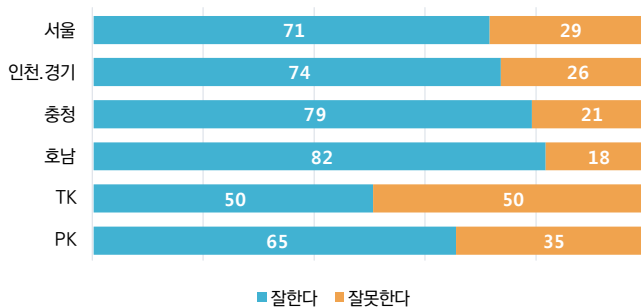
코로나19 정부대처 평가 : 전체, 연령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3.29 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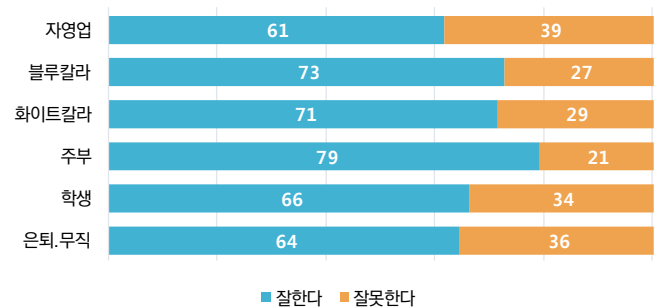
코로나19 정부대처 평가 : 60대남녀별,이념성향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3.29 조사,단위:%)



코로나19 정부대처 평가 : 지역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3.29 조사,단위: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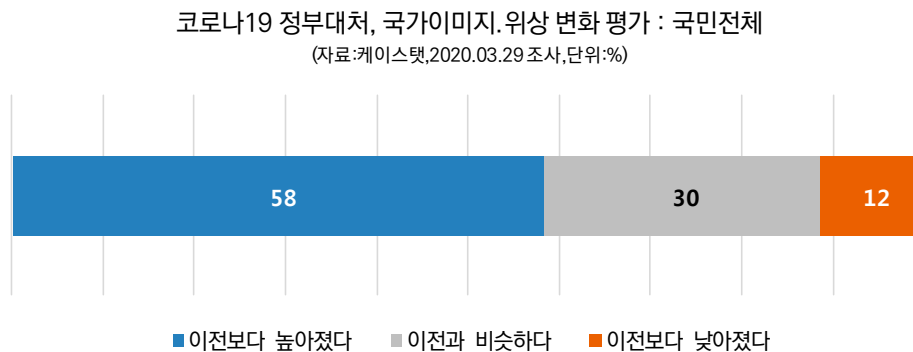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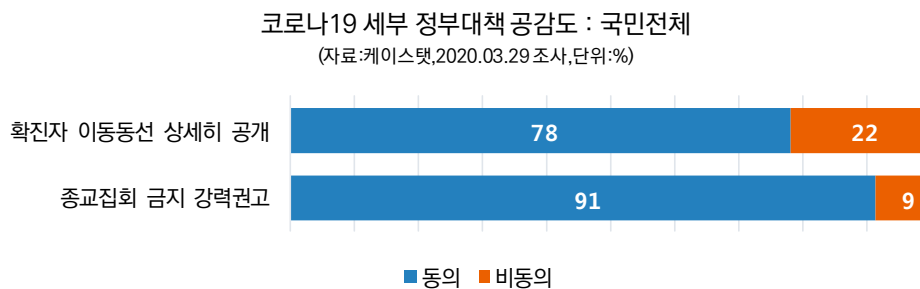


코로나19 정부대처 평가 : 직업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3.29 조사,단위:%)



※ **코로나19 세부정책 공감도 높고, 대외 이미지도 긍정평가**

- ▶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처에 높은 수준으로 긍정평가를 내린 배경에는 개별 세부정책에 대한 강한 동의와 신뢰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▶ ‘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조사하여 상세히 공개’하는데 대해 국민 78%가 동의를 표했고, ‘종교집회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또는 강력권고 실시’에 대해서도 91%의 국민이 동의 의사를 표함
- ‘종교집회 금지 행정명령·강력권고’ 조치에 대해 개신교 신자 중에서도 동의 79% vs 비동의 21%로 동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또한, 코로나19 정부의 대처 결과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나 위상도 ‘이전보다 높아졌다’는 의견이 58%로 다수를 차지함
- ‘이전보다 낮아졌다’는 응답은 12%에 그쳤으며, ‘이전과 비슷하다’는 의견은 30%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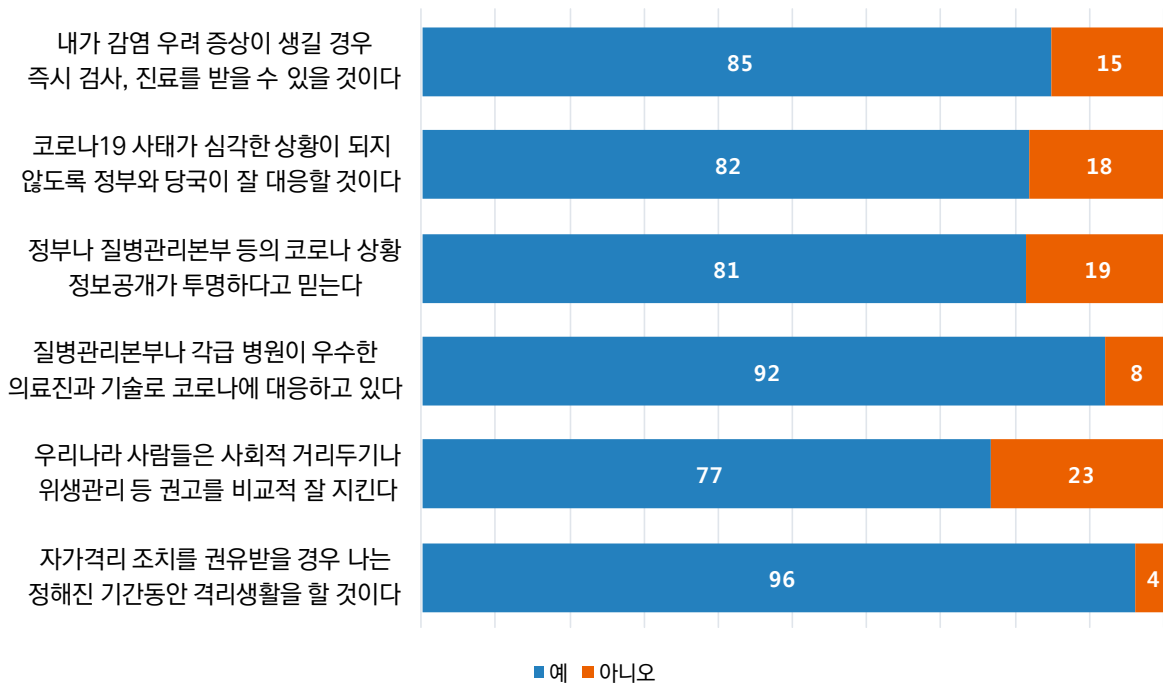


Kstat Point

- ☑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‘마스크 공급 대란’ 등 정부의 미숙한 대처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었으나, 현재는 정부 대처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음
: 연령, 이념, 지역, 계층을 떠나 모든 계층에서 긍정 평가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됨
- ☑ 정부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대처 노력이 유럽·미국 등 다른 국가의 혼란스러운 모습과 대비되면서 정부·당국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킨 결과로 분석됨

※ **코로나19 감염 시 정부 조치에 대한 믿음, 매우 강해**

- ▶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처 긍정평가와 세부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은 코로나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불안 강도를 낮추고 정부와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‘내가 감염 우려 증상이 생길 경우 즉시 검사,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’라는 질문에 ‘예’라고 응답한 국민이 85%를 차지함
- ▶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(82%), 정보 공개가 투명하며(81%), 우수한 의료진과 기술로 대응하고 있다(92%)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▶ 다른 국민들도 정부 권고를 잘 지키고 있으며(77%), 자신 역시 상황 발생 시 자가격리 조치를 할 것(96%)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



- ▶ 정부·당국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신뢰는 연령, 이념, 지역, 계층을 떠나 모든 계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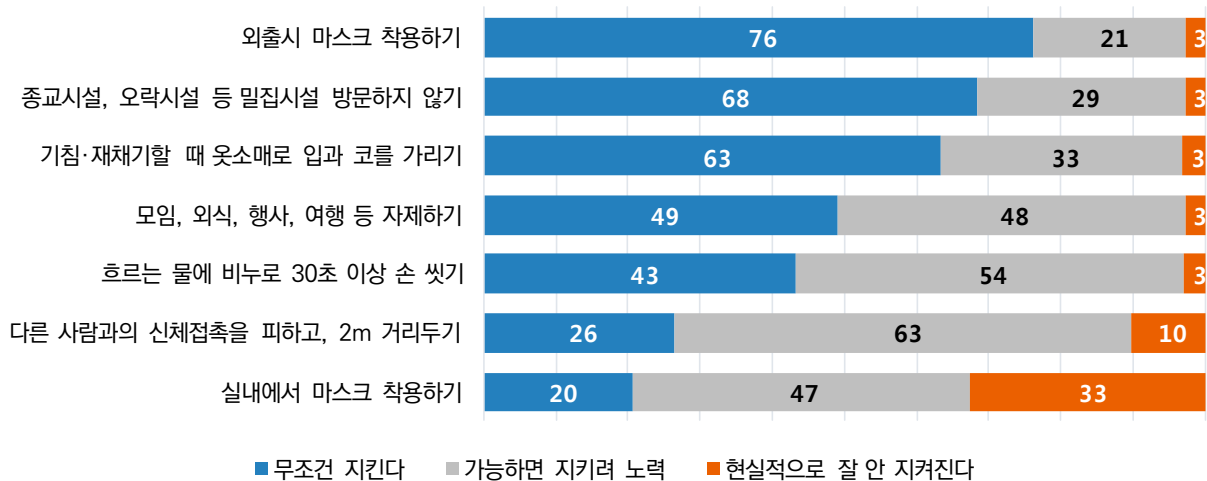
Kstat Point

- ☑ **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**
: 현 정부의 능동적인 조치가 적절한 방향이라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된 것은 분명한 흐름임
- ☑ **다만, 이러한 높은 수준의 정부 신뢰는 감염병이라는 코로나19의 속성 때문에 유도된 측면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임**
: 즉, 국민들은 개인적 일탈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음
: 이에 국민들은 사실상 정부를 믿고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임
- ☑ **최근까지 흐름은 코로나19가 감염병·재난이라는 위기 측면이 강력하게 부각되어 왔음**
: 이런 상황에서 형성된 정부에 대한 신뢰나 긍정평가가 ‘코로나 이후’ 중심 이슈를 형성할 경제위기 대응 국면에서도 유지될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려움

▣ 국민수칙 준수 여부 평가

※ 코로나19 예방 국민수칙, 대체로 잘 지키고 있어

- ▶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국민수칙들을 대체로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- “선생님께서서는 코로나19 사태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 수칙·권고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?” 라는 각각의 질문에 거의 대부분 무조건 지키거나 가능하면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함
- ▶ ‘무조건 지킨다’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수칙은 ‘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’(76%)이고, 일상적 실천이 가장 낮은 수칙은 ‘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기’(20%)로 나타남
- 또한 ‘종교시설·오락시설 등 밀집시설 방문하지 않기’(68%), ‘모임·외식·행사·여행 등 자제하기’(49%) 등도 높은 수준에서 지켜지고 있어 사실상 국민의 일상이 상당 폭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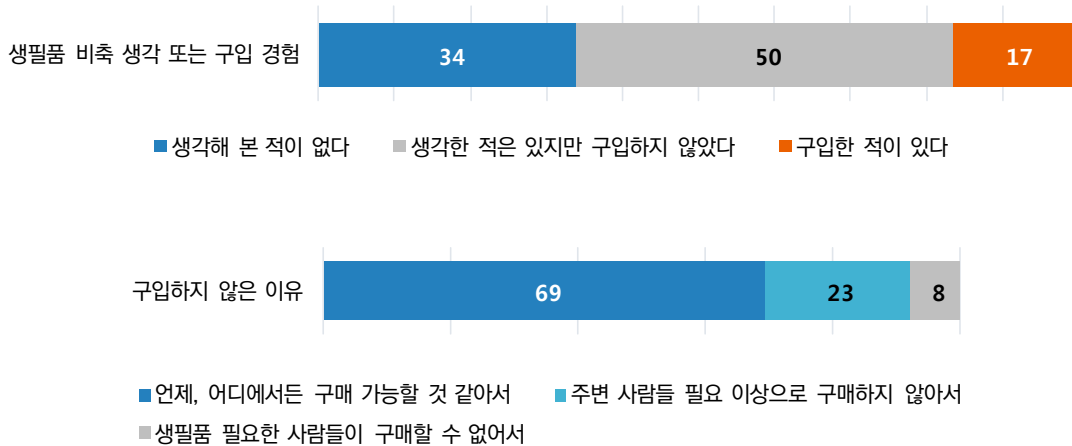


Kstat Point

- ☑ 우리나라 보다 늦게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미국, 유럽 등의 국가들은 ‘도시봉쇄’ 같은 강력한 조치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음
- ☑ 우리나라는 이런 수준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사실상 ‘도시봉쇄’ 조치에 버금갈 정도로 ‘사회적 거리두기’가 일상화 되어 있는 상황임
- ☑ 일부 일탈이나 비협조는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하는 문제지만 국민 다수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강력하게 이뤄지면서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시민의식 평가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

※ '사재기' 필요성 낮게 생각하지만 코로나19 심각해질 경우 우려감 존재

- ▶ 전 세계적으로 생필품 '사재기'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재기 행위를 찾아보기 어려움
- ▶ 조사결과에서도 83%의 국민이 '사재기'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 - "생필품 비축 생각 또는 구입 경험"에 대한 질문 결과 '생각해 본 적이 없다'는 응답이 34%로 나타났고, '생각한 적은 있지만 구입하지 않았다'는 응답이 50%로 나타남
 - '구입한 적이 있다'는 응답은 17%에 그침
- ▶ '사재기'를 하지 않은 이유는 생필품 공급이 충분하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으로 조사됨
 - 위 질문에 '생각해 본 적이 없다'는 응답자와 '생각한 적은 있지만 구입하지 않았다'는 응답자들에게 '구입하지 않은 이유'를 질문한 결과 '언제 어디서든 구매 가능할 것 같아서'가 69%로 높게 나타남



- ▶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물품 사재기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하고 있음
- 사재기 현상이 '심각하지 않을 것'이라는 응답은 49%이고 '심각해질 것'이라는 응답은 51%로 국민 중 절반 정도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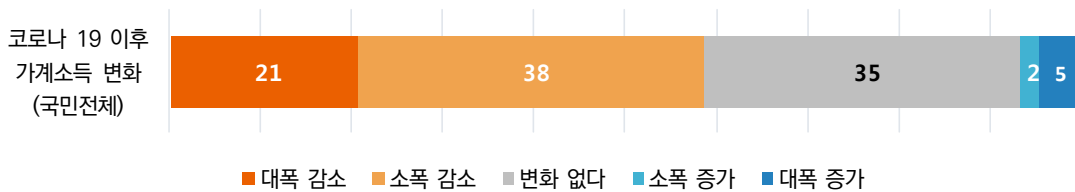


- ▶ 사재기 현상이 '심각해질 것'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계층은 △2030세대와 60대이상 연령층 △보수층 △서울과 PK지역 △블루칼라, 학생, 은퇴·무직자 계층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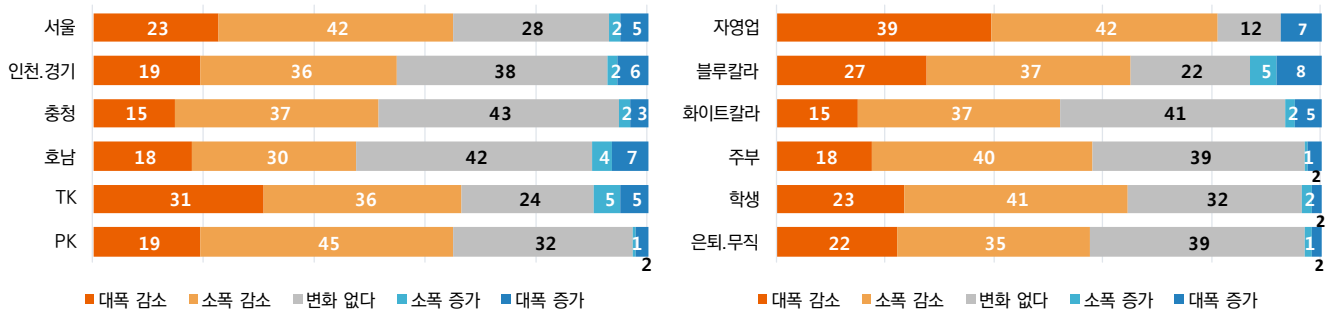
경제적 삶 변화상

※ 코로나19 이후 가계소득 감소한 국민, 59%

- ▶ 우리 국민은 대체로 코로나19 감염수칙을 잘 지키고, 사재기도 하지 않는 등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적 타격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됨
- 코로나19 이후 가계소득이 ‘대폭 감소’했다는 국민은 21%이고, ‘소폭 감소’ 응답은 38%로 나타남
- 이에 비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국민은 7%에 불과하고, 변화가 없다는 국민이 35%임



- ▶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가계소득이 감소했으며, 특히 서울(65%), TK(66%), PK(65%) 지역의 가계소득 감소가 두드러짐
- ▶ 직업별로도 전 직업군에서 가계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자영업자가 81%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됨
- 블루칼라 종사자도 65%가 가계소득이 줄었고, 학생 계층도 64%가 가계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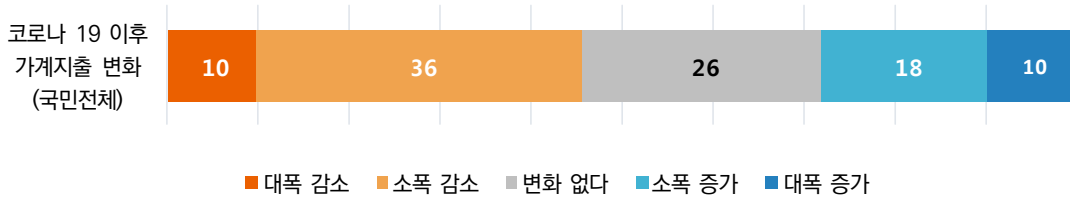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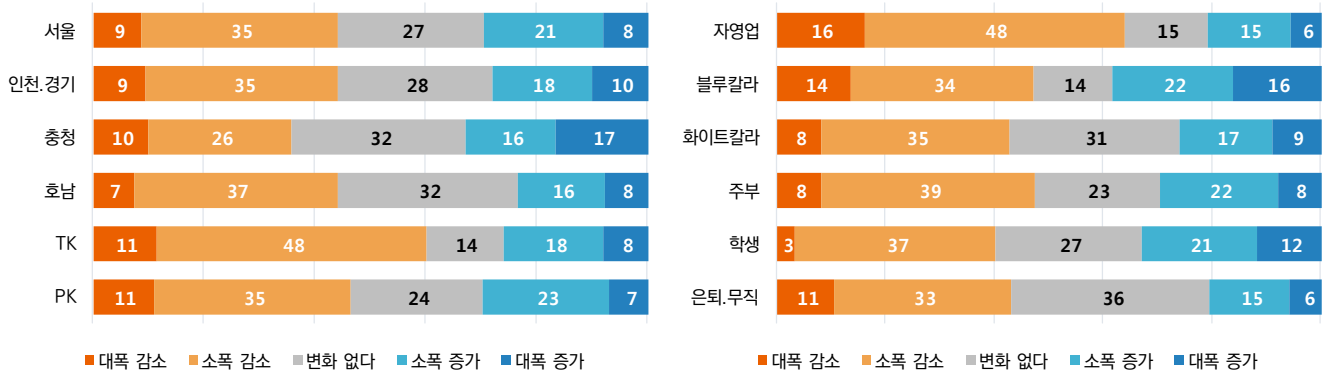
- ☑ 사상초유의 감염병 확산 사태에 따른 ‘사회적 거리두기’와 이와 관련된 소비감소, 재택근무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가계소득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☑ 일부 지방정부에 이어 최근 중앙정부가 긴급 소득지원을 결정한 데는 이러한 심각한 소득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
: 긴급 소득지원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이번 중앙정부의 결정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

※ 가계지출 역시 국민 46%가 감소했다고 응답

- ▶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로 인해 가계지출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
- 코로나19 이후 가계지출이 '대폭 감소'한 국민은 10%이고, '소폭 감소'한 국민은 36%로 조사됨
- 가계지출이 '소폭 증가'한 국민은 18%이고, '대폭 증가'한 국민은 10%이며, 변화가 없다는 국민은 26%였음
- 가계소득이 증가했다는 가구는 7%에 불과했지만 가계지출이 늘어난 가구가 28%인 점이 특이함



- ▶ 모든 지역에서 가계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특히 TK(60%) 지역의 가계지출 감소가 가장 큼
- ▶ 전 직업군에서 가계지출 감소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자영업자가 64%로 가장 지출을 줄인 것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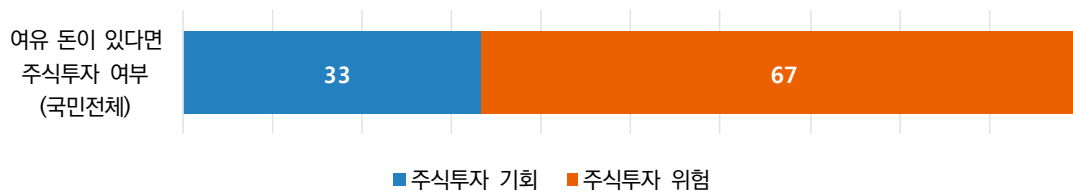


Kstat Poi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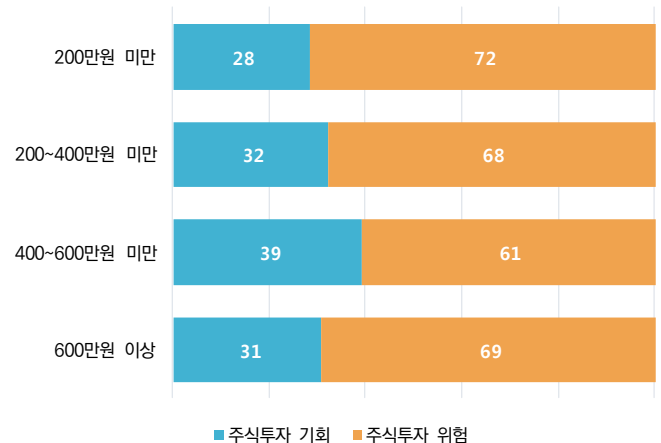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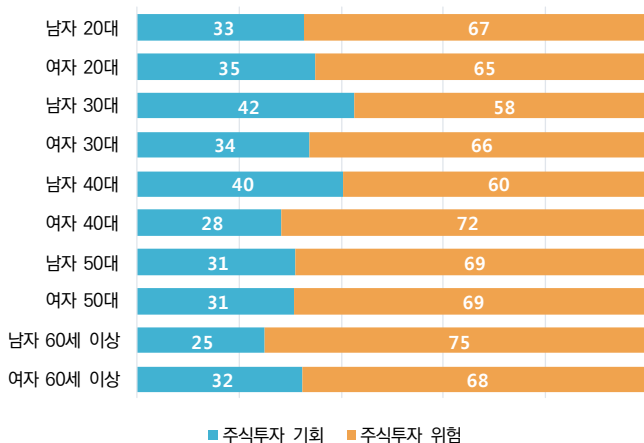
- ☑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출과 각종 모임을 자제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긴급 재난지원 방식이 실 지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함
 - : 중앙정부는 소득 지원 → 소비 증가 → 경기 회복 이라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과연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임
 - : 생계 곤란, 저소득층에는 지원 효과가 크겠지만, 생필품 소비가 중심이 될 경우 중산층은 원래 할 소비를 정부 지원금으로 대체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는 등의 지적임
- ☑ 이에 소득지원보다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감면에 예산을 투입해 가계소득을 보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
 - : 향후 중앙정부의 소득지원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거둘지 주목되는 지점임

※ 여윌돈 있다면 지금이 ‘주식투자 기회’ 33% vs ‘주식투자 위험’ 67%

- ▶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길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
- “코로나19 사태의 안정, 정부의 경기 부양책, 금리인하 등의 변수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여윌돈이 있다면 두 가지 행동 중에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?” 라는 질문에 ‘지금이 주식에 투자할 기회라고 생각한다’고 응답한 국민은 33%이고, ‘상황 변화 등 지금보다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’는 응답이 67%로 조사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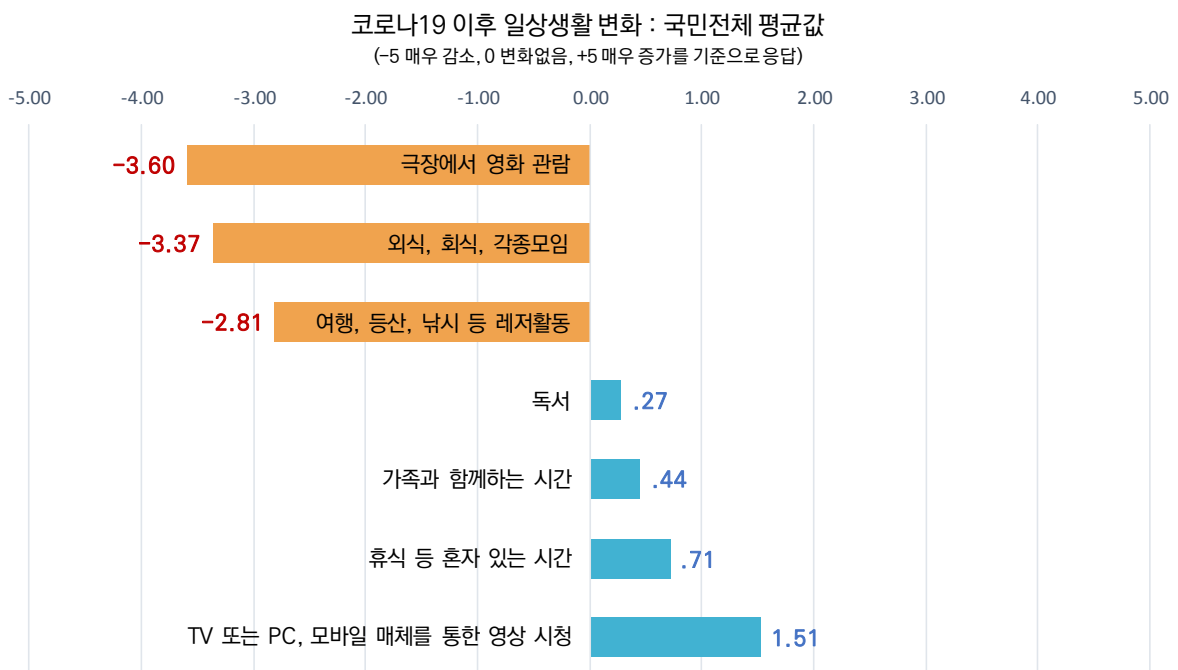
- ▶ 모든 성/연령대에서 ‘주식투자 위험’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온 가운데 특히 여자 40대와 남자 60세 이상에서 위험하다는 응답이 높았음
- 이에 비해 ‘주식투자 기회’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/연령대는 남자 30대와 남자 40대임
- ▶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봤을 때도 ‘주식투자 위험’ 응답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남
- 상대적으로 ‘주식투자 기회’라는 응답은 400~600만원 사이 중산층에서 높은 응답을 보임



▣ 일상적 삶 변화상

※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, 급격히 변화돼

- ▶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른 바 ‘사회적 거리두기’ 등으로 인해 각종 모임 및 외부활동은 매우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
 -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‘-5 매우 감소’, ‘0 변화 없음’, ‘+5 매우 증가’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조사됨
 - ‘극장에서 영화관람’이 -3.60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다음으로 ‘외식·회식·각종모임’(-3.37), ‘여행·등산·낚시 등 레저활동’(-2.81) 순으로 감소함
- ▶ 외부 활동 감소에 따라 증가한 항목은 ‘TV 또는 PC, 모바일 매체를 통한 영상 시청’(1.51)을 시작으로 ‘휴식 등 혼자 있는 시간’(0.71), ‘가족과 함께하는 시간’(0.44), ‘독서’(0.27)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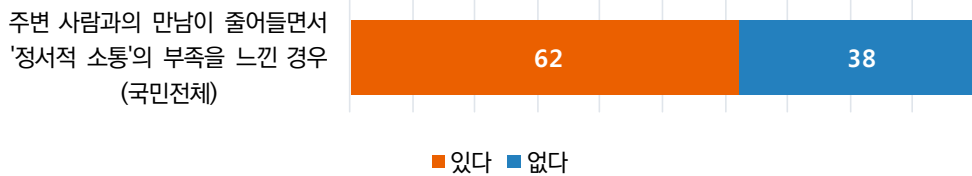
※ 코로나19 사태로 ‘친지나 지인과의 만남’ 힘들고, ‘정서적 소통’ 부족 느껴

- ▶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힘들거나 불편한 점으로 ‘친지나 지인과의 만남’을 꼽음
- 복수응답 결과 ‘친지나 지인과의 만남’이 39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‘가계소득 감소’(31%), ‘마스크 구입’(27%), ‘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’(24%), ‘대중교통 이용’(20%), ‘병원·보건소 방문’(17%) 순으로 응답함
- ‘가계소득 감소’ 보다 ‘친지나 지인과의 만남’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더 힘들어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함

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힘든(불편한) 점 (복수응답) : 국민전체
(자료:케이스탯,2020.03.29 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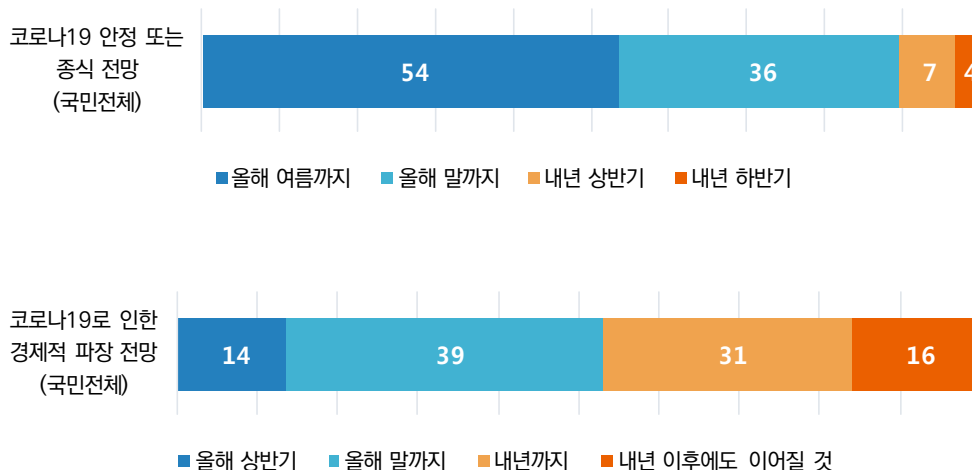
- ▶ 친지, 지인 등 주변사람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62%의 국민이 ‘정서적 소통’ 부족을 느낀 것으로 나타남
- ‘정서적 소통’ 부족을 느낀 경우가 없다는 응답은 38%임
- ▶ ‘정서적 소통’ 부족의 결과로 국민들은 이전보다 전화, 문자, 카카오톡 등의 연락 수단 활용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
- 주변 지인과의 소통을 위해 연락 수단 활용이 ‘이전보다 늘었다’는 국민이 27%였고, ‘이전보다 줄었다’는 국민은 12%로 나타남



▣ 코로나19 종식 전망

※ 코로나19 '올해 여름까지' 종식 전망, 경제적 파장은 길 것으로 생각

- ▶ 국민들은 전례없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안에 안정 또는 종식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"선생님께서서는 코로나19 안정 또는 종식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?" 라는 질문에 '올해 여름까지'라는 응답이 54%로 가장 많았음
 - 다음으로 '올해 말까지'(36%), '내년 상반기'(7%), '내년 하반기'(4%) 순으로 응답함
- ▶ 코로나19 종식에 대해서는 기대 섞인 전망을 하면서도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
 - "선생님께서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어느 정도로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?" 라는 질문에 '올해 말까지'라는 응답이 39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'내년까지'라는 응답도 31%로 나타남
 - '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'이라는 비관적인 응답도 16%로 조사됐고, '올해 상반기'라는 희망적인 응답은 14%에 그쳤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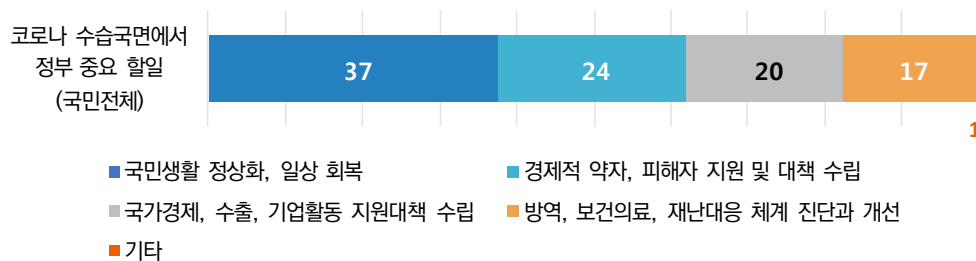


Kstat Point

- ☑ 국민들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지만, 경제에 미치는 충격에도 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: 각종 뉴스를 통해 세계경제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도되고,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수입 감소 등 경제적 타격을 직접 경험하면서 경제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
- ☑ 향후 코로나19가 진정 또는 종식되는 시점에서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삶의 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

※ 코로나19 수습 국면 정부 주력과제, ‘국민생활 정상화’와 ‘경제적 약자 지원’

- ▶ 코로나19가 수습 국면에 접어든 후에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로 ‘국민생활 정상화, 일상 회복’이 37%로 가장 많아 일상이 정지된 지금의 현실을 불편해하는 것으로 나타남
- 다음으로 ‘경제적 약자, 피해자 지원 및 대책 수립’(24%), ‘국가경제, 수출, 기업활동 지원대책 수립’(20%), ‘방역, 보건의료, 재난대응 체계 진단과 개선’(17%) 순으로 응답함
- ▶ 앞서의 경제에 미친 파장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‘국민생활 정상화, 일상 회복’은 곧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삶의 문제 해결로 읽힘
- 또한 이른 바 ‘코로나 블루’인 ‘정서적 소통’ 문제도 중요한 극복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됨



조 사 개 요

조 사 기 간

2020년 3월 27일(금) ~ 3월 29일(일)

조 사 방 법

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

조 사 기 관

케이스탯리서치

표 본 추 출

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

표 본 틀

케이스탯리서치 K-패널

유 효 표 본

총 1,014명

표 본 오 차

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$\pm 3.08\%p$

가중치 부여방식

지역별, 성별, 연령별 셀 가중 부여
(2020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)

케이스탯은 조사·통계·컨설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,
매월 2회 “**Kstat Report**”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.



- **Kstat Report** 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(Buzz)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사회, 경제, 생활,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매월 2, 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정기 구독을 원하시면, 문의 메일(report@kstat.co.kr)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.



Kstat Report 04호는 “**환경**” 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